

Kipper(כִּפֵּר) 의미와 우리말 번역에 관한 제언

-『개역개정판』, 『표준새번역』, 『공동번역개정판』을 중심으로-

노세영*

1. 연구사

Kipper의 의미와 그 용법에 관하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논의되어 왔다¹⁾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소개되었듯이 kipper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어원론적 접근은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다. 아라비아어의 ‘kafara’에 근거하여 ‘...을 덮다(to cover)’라고 이해한다든지, 아카드어의 ‘kuppuru’에 근거하여 ‘씻어내다(wipe off)’ 혹은 ‘정화하다(to purify)’라고 이해하거나 혹은 히브리어의 ‘koper’라는 명사에서 파생한 말로서 ‘속전(ransom)과 관련된 행위’ 등의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²⁾ 이러한 어원론적 의미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어 이해된다. 즉, ‘죄를 덮다’, ‘죄를 씻다’, 혹은 ‘죄를 대신하여 속전을 지불하다’ 등의 해석이 그런 것들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성서에서 번역하고 있는 ‘속죄하다(atone for, expiate)’라는 구절과 연결되어 kipper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행해지는 행위로 설명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기독교 신학의 속죄론의 중심 언어로 자리매김을 해 왔다. 그러나 어원론적 접근을 통하여 얻어진 각각의 의미가 사실상 일부 구절에서 적용될 수는 있지만 구약에서 사용된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은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지적되어 왔다.

kipper의 의미에 대한 초기 학문적 논쟁은 크게 두 가지 다른 번역에서 출발한

*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약학. 이 논문은 2009학년도 1학기 서울신학대학교 연구휴직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1) 저자도 이미 hattath 제사의 상황에서 죽이는 hattath 제물과 관련된 kipper의 의미에 대하여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밀그롬(J. Milgrom)의 견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노세영, “죽이는 속죄제물에서 kipper 의미의 연구”, 『구약논단』 19 (2005/12), 31-52. 반면에 이 논문에서는 hattath 제사에 단순히 제한되지 않고 제의적 상황에서 사용되는 kipper에 대한 의미와 번역의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 2) 대부분의 레위기 주석서들은 어원론적 접근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특별히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Baruch A. Levin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A Study of Cult and Some Cultic Terms in Ancient Israel* (Leiden: E. J. Brill, 1974), 56-61; B. Lang, “כִּפֵּר, kipper”, *TDOT* 7 (Grand Rapids: Eerdmans, 1995), 289-290.

다. 첫 번째 견해는 ‘달래다, 화해시키다(propitiate, appease)’로 해석되는 경우이다.³⁾ 이 번역은 위에서 소개한 어원론적 의미뿐만 아니라 본문의 문맥과 상황에 근거하여 kipper를 이해한다. 흥미롭게도 70인역은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의 kipper를 헬라어의 ἐξιλάσκομαι로 번역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달래다, 화해하다(propitiate, appease)’이다.⁴⁾ Porúbcan은 그의 책에서 kipper가 쓰이는 비제의적 혹은 제의적 본문에서 ‘…을 덮다’, 혹은 ‘…을 정화하다’라는 의미를 발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속전(ransom)으로서의 선물이나 기도 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얼굴을 부드럽게 하거나 화를 달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⁵⁾ 그러나 오히려 대부분의 학자들은 ‘화해시키다’라는 의미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표현되는 경우에 가끔 나타나기는 하지만(창 32:20; 잠 16:14)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부분의 제의적 본문에서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화를 달래는 상황을 보여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kipper 제사는 하나님의 타오르는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기능보다는 하나님께 잘못 가까이 나아갈 때에 생기게 될 하나님의 잠재적 분노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한다(민 25:13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일 수 있음).⁶⁾ 아울러 하나님의 용서나 구원은 죄인의 선물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⁷⁾

두 번째 견해는 전통적으로 번역해 온 ‘구속하다, 속죄하다(atone for, expiate)’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물론 우리말 『개역』이나 『개역개정』도 이 견해를 따라 거의 모든 경우에서 예외 없이 kipper를 ‘속죄(贖罪)하다’ 혹은 ‘속(贖)하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지금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속죄하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나 죄책감을 제거하는 행위와 깊은 관련을 맺는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몇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kipper가 항상 죄와 관련되어 사용되는가? 제의적인 측면에서 유출병이나 문둥병과 같은 인간적인 부정(unclean)과 연관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도 ‘속죄’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존 하틀리(John E. Hartley)는 ‘속죄하다(expiate)’라는 말에는 속죄와 정결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죄하다’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⁸⁾ 물론 의미론적으로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말 번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3) S. J. Štefan Porúbcan, *Sin in the Old Testament: A Soteriological Study* (Roma: Herder, 1963), 87-101.

4) B. Lang, “כִּפֶּר, kipper”, 291.

5) *Ibid.*, 100.

6) John E. Hartley, *Leviticus*, WBC 4 (Dallas: Word Books, Publisher, 1992), 64.

7) B. Lang, “כִּפֶּר, kipper”, 295.

8) John E. Hartley, *Leviticus*, 64.

수 있을까는 여전히 의문이다. 하틀리가 이미 지적하고 있듯이 여전히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 단어 안에 이중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번역하거나 하나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을 선호한다

Kipper의 의미에 대한 이러한 논쟁에서 대표적인 두 유대인 학자들이 있음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다. 바루크 레빈(Baruch A. Levine)은 그 중 하나이다. 레빈은 적어도 구약성서에서 사용된 kipper가 아라비아어의 'kafara'의 어근과 관련되어 '죄를 덮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면서 오히려 kipper는 아카드어의 'kuppuru'와 더 평행을 이룬다고 주장한다.⁹⁾ 그에 따르면 'kuppuru'는 '씻다, 깨끗하게 하다, 문지르다(wipe off, clean objects, rub)'와 '정화하다(purify)' 등의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발을 씻는 행위 등과 같이 신체적인 접촉을 통하여 깨끗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의미인 '정화하다'라는 말은 마술적이거나 제의적인 행위를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이다. 따라서 구약의 kipper는 결코 '죄를 덮는다'거나 '속죄' 혹은 '용서' 등의 의미를 전달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화하다'에 가깝다고 말한다.¹⁰⁾

kipper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에 근거하여 레빈은 kipper가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 서로 다르게 번역한다. 첫째는 kipper가 직접목적어를 갖는 경우로 아카드어의 'kuppuru'와 평행되며 그 의미는 '...를 정화하다'이다. 둘째는 kipper가 전치사를 동반한 간접목적어를 가진 경우로 기능적이거나 혹은 보다 기술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곧 kipper는 기본적으로 '속죄제사를 수행하다'의 의미로 해석하되 문맥에 따라 약간의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Kipper + לָךְ의 경우에는 관계적 과정(relational process)과 공간적 과정(spatial process)으로 다시 구분되며 관계적 과정에서는 '...에 관하여 속죄제사를 드리다'라고 번역해야 하며, 공간적 과정에서는 '...에 근접하여 속죄제사를 드리다', 혹은 '... 위에 제사를 드리다'라고 번역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제사 행위를 통하여 정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간접 목적어가 사람인 경우에만 사용되는 kipper + לְעַמּוּךָ의 문맥에서는 '...를 위하여 속죄를 완성하다'로 이해한다.¹¹⁾ 곧 레빈은 직접목적어를 갖는 경우에는 목적어 자체가 정화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간접목적어를 갖는 경우에는 그 문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속죄제사 행위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우리말 성경 가운데서는 『표준』과 『공동개정』 등이 일반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레빈의 이해와 거의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 하다.

9) Baruch A. Levine, *The Presence of the Lord*, 55-57. 레빈의 견해에 대하여서는 저자의 또 다른 논문에서 간략하게 이미 논의하였다. 노세영, "죽이는 속죄제물에서 kipper 의미의 연구", 33-34.

10) Ibid., 59-60.

11) B. A. Levin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64-66.

(Kipper가 직접 목적어를 갖는 경우: 레 16:33)

『표준』

그는 지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하며,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여야 하고

『공동개정』

지성소와 만남의 장막과 제단을 정하게 해야 한다.

(kipper가 전치사를 가진 간접목적어를 갖는 경우: 레 16:18)

『표준』

성소 안에서 치르는 예식이 끝나면 아론은 주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올리고,

잡은 수소의 피와 숫염소의 피를 받아다가…

『공동개정』

그리고 나서 야훼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와 그 제단을 정하게 하는 예식을 올려야 한다.

먼저 그는 황소 피와 수염소 피를 가져다가 제단 뿔들 위에 두루 바른 다

이런 점에서 레빈은 적어도 제의적 상황에서 ‘속죄의 기본적인 목적은 부정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곧 ‘속죄’란 부정이나 오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죄악 그 자체를 씻음으로 정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¹²⁾ 그러나 레빈이 전제로 하고 있는 아카드어와의 유사성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된다. 비록 kipper가 ‘정화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과연 구약성서에서 사용하는 kipper의 용법이 아카드어의 kuppuru의 용법과 같은가 하는 것이다. 랭이 말한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행해진 제사들에서 피가 갖는 기능이 이스라엘의 속죄제나 속건제와 같은 제사에서 그것과 같은 것인가에 대하여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구약의 kipper의 기본적인 의미가 오직 ‘정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¹³⁾ 또한 레빈의 견해가 옳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말에 있어서 속죄의 목적이 부정으로부터의 정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순히 이해하여 번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Kipper 단어 연구에 레빈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친 학자는 밀그롬(J. Milgrom)이다. 그는 kipper의 의미를 연구함에 있어서 레빈과는 달리 비제의적

12) Ibid., 23, 77.

13) B. Lang, “כִּפֶּר, kipper”, 290; 노세영, “죽이는 속죄제물에서 kipper 의미의 연구”, 35.

및 제의적 본문을 구분하고 제의적 본문 중에서도 hattath 제사와 다른 제사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다르게 이해한다. 밀그롬은 kipper는 처음 성전 안의 제단 등에 피를 바르는 등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성소 안의 위험한 부정을 제거하는 행동으로 시작하였다가 후에는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인 “속죄하다(expiate)”의 의미로 발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⁴⁾ 이러한 전제에 기초하여 제의적 상황에서 kipper가 사용되는 경우를 크게 두 상황으로 구분하여 소위 ‘정화제사’라고 일컫는 hattath 제사의 경우에는 “정화하다(to purify)”라고 번역하고 나머지 제사의 경우에는 “속죄하다(expiate for)”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⁵⁾ 따라서 kipper의 가장 초보적인 의미를 지닌 hattath 제사 상황에서 성소의 제단에 제물의 피를 제단의 뿔에 바르거나 속죄소 앞에 뿌리는 행위에 주목함으로써 사람이 부지중에 지은 죄로 인하여 부정해진 성소를 정화하기 위하여 피를 바르거나 뿌리는 행위를 kipper와 동일시한다. 밀그롬의 이런 kipper에 대한 이해는 첫째로 hattath 제물의 피가 성소나 그 부속물에는 발리거나 뿌려지지만 사람에게는 피가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는다는 점과 둘째로 성소나 그 부속물은 kipper의 직접목적어로 나타나지만 사람은 전치사(לְ or בְ)를 수반하는 간접목적어로만 나타난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한다. 곧 kipper의 직접적 대상 곧 정화의 대상은 성소와 그 부속물이 된다는 말이다.¹⁶⁾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밀그롬은 hattath 제사에서 성소나 성소의 부속물들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 행위를 통하여 부정에서부터 정화되는 것이며 사람은 성소와 그 부속물의 정화를 통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즉, hattath 제사에서 kipper는 사람을 위하여 성소를 정화시키는 행위로서 “속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정화하다(purify)”라고 번역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⁷⁾

이러한 밀그롬의 견해는 kipper의 의미에는 ‘정화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hattath 제사를 단순히 속죄제(sin offering)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정화제사(purification offering)이라고 이해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그롬의 기본적인 전제에 관련하여 여전히 의문점을 갖는다. 과연 hattath 제사에서 행해지는 kipper의 행위가 가

14) J. Milgrom, “Kipper”, *Encyclopedia Judaica* 10 (1971), 1041.

15) Ibid. 대부분의 학자들은 hattath 제사를 속죄제(sin offering)이라고 명명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hattath를 ‘죄’로 이해하는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밀그롬은 hattath 제사를 정화제사(purification offering)이라고 명명한다. “Sin-Offering or Purification-Offering”, *VT* 21 (1979), 237-239. 이 논문에서는 hattath 제사에 관한 것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제사의 이름을 히브리어 그대로 hattath 제사가 사용한다.

16) J. Milgrom, *Leviticu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2004), 30-31.

17) J. Milgrom, “Israel’s Sanctuary: The Priestly ‘Picture of Doran Gray’”, *Revue biblique* 83 (1976), 390-399.

장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라는 것은 옳은 것일까 Hattath 제사에서 피를 제단 뿔에 바르는 것은 ‘정화하다’이지만 다른 제사에서 피를 단 사면에 뿌리는 것은 ‘속죄하다’라는 말로 발전한 것일까? 위임제사에서 제사장들에게 피를 바르는 행위는 제사장을 정화하는/거룩하게 하는 기능을 갖지 않는 것일까(출 29:19-21)? Hattath 제사에서 피와 관련된 행위가 kipper와 동일시 될 수 있는가? Kipper 문장에서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는 간접목적어가 사람인 경우와 성소 및 그 부속물인 경우에 같은 전치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서로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을까? 사람은 정화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없는가?¹⁸⁾

이런 질문들과 관련하여 키우치(N. Kiuchi)는 피와 관련된 행위가 속죄소에 제한된 것으로 지성소 전체를 정화하게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근거로 hattath 제사에서 피의 행위가 kipper의 중요한 한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kipper 행위의 전체를 대표할 수 없음을 증명하였다.¹⁹⁾ 따라서 kipper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피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kipper와 비슷하면서도 함께 쓰이는 다른 동사들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kipper와 그와 유사한 동사(קָטַף [깨끗하게 하다], טָהַר [정화하다], שָׁקַף [거룩하게 하다], וָיָן וְשָׁקַף [죄를 짊어지다, 죄를 담당하다])들이 함께 쓰이는 본문들을 통해 kipper가 이 동사들의 뜻을 모두 내포하는 상위개념(supernym)임을 밝혀내었다. 곧 한편으로는 ‘정화하다’ 혹은 ‘거룩하게 하다’ 등과 같은 동사들의 상위개념이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죄를 용서하는 개념과 관련된 ‘죄를 짊어지다’의 동사의 상위개념이라는 것이다.²⁰⁾

이러한 모든 논쟁들을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는 kipper는 다양한 제사형태나 그 문맥적 상황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한 가지 단어로 그 의미를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는 다양한 제사 중에서도 hattath 제사에서 사용되는 용법은 kipper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지만 hattath 제사에서 사용된 kipper 이해가 구약성서 전체에 나오는 kipper의 의미를 대변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셋째로는 kipper가 ‘정화하다’, ‘거룩하게 하다’, ‘죄를 용서하다’, ‘속죄하다’ 등과 같은 의미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말 성경에서 『개역』이나 『개역개정』이 kipper를 거의 ‘속죄하다’의 의미로 번역하는 것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표준』이나 『공동개정』 등의 번역은 일부 본문에서 그 문맥적

18) 위의 질문에 대하여는 이미 저자의 또 다른 논문에서 제기하였다 노세영, “죽이는 속죄제물에서 kipper 의미의 연구”, 37-38.

19) N. Kiuchi, *The Purification Offering in the Priestly Literature: Its Meaning and Function*, JSOTSupp 56 (Sheffield: JSOT Press, 1987), 92-93, 97-98.

20) Ibid., 96-98.

상황을 고려하여 번역하기는 했지만 어떤 통일성을 갖고 번역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또한 우리말 번역에 있어서 우리말 어떤 단어가 히브리어의 kipper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다.

2. 죄의 용서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kipper

Kipper가 갖는 다양한 의미를 알고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살펴 보아야 하는 것은 kipper가 사용된 문맥에서 kipper 행위로 인해 얻은 결과를 알아보는 일일 것이다. kipper와 함께 쓰이면서 그 결과를 표현하는 동사 중 하나는 ‘용서받다’이다. 이 경우는 모두 ‘용서하다(סָלַח)’의 니팔형(נִפְלָג)으로만 사용되는데 이는 수동적으로 용서를 받음을 의미하며 구약성서에서 13번 나타난다(레 4:20, 26, 31, 35; 5:10, 13, 16, 18, 6:7[MT 5:26]; 19:22; 민 15:25, 26, 28). 이 중에서 레 4:13-21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자. 부지중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면 제사장 앞으로 수송아지의 hattath 제물을 가지고 나가고 회중의 장로들이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은 후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커튼 앞에 일곱 번 피를 뿌리고 회막 안 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 전부는 회막 앞 번제단 아래에 뿌리고 제물의 기름은 모두 단 위에서 불사른다(레 4:13-19). 흥미롭게도 4:20에서는 13-19절에 나타난 이 모든 행위를 4:4-12에 있는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 모든 제사 행위를 통틀어서 표현하는 것으로 kipper를 사용하고 있다. 곧 “회중을 위하여(+לָוּ) kipper 한즉 회중은 용서를 받는다”고 희생제사의 결과를 서술한다. 4:13-20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죄를 짓는 대상과 죄의 내용 → 제물의 종류 → 제사드리는 방법과 순서 → 제사장의 제사행위로서의 kipper 행위 → kipper의 결과로서의 용서’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구조를 통하여 4:20에 표현된 kipper 행위가 4:13-19에서 행해지는 전체 속죄제사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곧 kipper는 hattath 제물의 피와 관련된 행위 뿐만 아니라 모든 hattath 제사 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Kipper + נִפְלָג가 나오는 경우들을 모두 살펴보면 이에 대한 문제가 좀 더 분명해진다. 레위기 4:20, 26, 31, 35; 5:10, 13; 민수기 15:25, 26, 28의 경우에는 hattath 제사를 드리는 상황에서 표현되는 것이라면 레위기 5:16, 18; 6:7; 19:22의 경우에는 asam 제사를 드리는 경우의 것들이다. 각 구절 상황의 기본적인 구조는 위에서 제시한 것과 다르지 않으며 kipper의 대상은 모두 사람이다. 다만

레위기 19:22과 민수기 15장의 경우에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그 순서가 생략되어 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kipper의 사용이 hattath 제사나 asam 제사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곧 위의 모든 경우에서 קִפּוּרִים는 kipper 행위의 결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이해가 옳다면 위에서 소개한 밀그롬의 몇 가지 주장들은 제고되어야 한다. 첫째는 hattath 제사의 kipper가 피의 행위에 동일시된다는 견해이다. 적어도 이 본문들에 따르면 피의 행위가 가장 중요한 제사행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kipper 행위 전체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kipper가 hattath 제사 행위 전체임을 말하고 있다.²¹⁾ 둘째 견해는 사람이 전치사 וְעִם과 함께 kipper의 간접목적어로 나타날 때 사람은 kipper의 정화 대상이 되지 않고 다만 kipper의 수혜자로서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적어도 레위기 4:1-5:13에 나타난 hattath 제사의 상황에 따르면 성소와 그 부속물의 정화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람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겨 부지중에 죄가 있을 경우(4:2, 13, 22, 27)나 부지중에 부정해 졌을 경우(5:2-3)에 hattath 제사를 통한 kipper 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적어도 kipper를 통한 용서나 정화가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사람이 부지중에 지은 죄나 부정을 깨달으면 즉시 hattath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점에서 일년에 한 번씩 드리는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의 hattath 제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희생제사에서 피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레위기 17:11은 피의 행위와 kipper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17:11에 따르면 희생제사에서 피가 죄를 속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17:11에 근거하면 피의 행위가 위에서 소개한 13개의 구절에서 kipper와 함께 사용됨으로 사람의 죄를 속하게 되는 것이다.²²⁾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미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였듯이 사람이 전치사와 함께 간접목적어로 쓰인 경우와 성소와 그 부속물이 직접목적어로 쓰인 경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²³⁾

21) 이 점에 대하여 이미 여러 학자들도 kipper 행위가 피의 행위에 제한되지 않음을 주장하며 밀그롬을 비평하고 있다. 각주 19번을 보라.

22) 밀그롬은 레위기 17:11은 kipper 행위와 관련이 없으며 화물제의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J. Milgrom, "Kipper", 1041.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본문이 모든 제사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N. Kiuchi, *The Purification Offering in the Priestly Literature*, 104; B. Levin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67-68; B. Lang, "קִפּוּרִים, kipper", 53; G. J.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79), 61.

23) N. Kiuchi, *The Purification Offering in the Priestly Literature: Its Meaning and Function*, 92; 노세영, "죽이는 속죄제물에서 kipper 의미의 연구", 39.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위에서 제시한 본문에서kipper의 기능은 죄를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적절해 보인다 레위기 4:20을 살펴보자.

『개역개정』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כִּפֹּר) 그들이 사함이 받으리라(מָלַח)

『표준』

그는 이렇게 수송아지를 다루면 된다. 이 수송아지도 속죄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다루듯이 다루면 된다. 제사장이 이렇게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כִּפֹּר),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מָלַח)

『공동개정』

그는 속죄제물을 처리한 방식대로 이 수소도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사제가 그들의 죄를 벗겨주면(כִּפֹּר) 그들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מָלַח)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죄를 속하는 권한에 관한 문제이다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회중의 죄는kipper 행위로 인해 속하게 될 수는 있지만 죄를 속하거나 용서하는 것은 그 행위에 의하여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곧 속죄나 용서는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다 본문에서 ‘용서받을 것이다(מָלַח)’라는 니팔형이 사용되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곧 kipper의 주격은 제사장이지만 용서받는 것은 니팔형으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용서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위의 본문들에 나타난kipper 행위는 희생제사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죄를 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Kipper 행위가 죄를 속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레위기 10:17에 의하여도 증명된다. 이 구절을 번역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עֲוֹנוֹ וְחַטָּאת과 כִּפֹּר의 접두어로 있는 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있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70인역을 따라 עֲוֹנוֹ וְחַטָּאת에 있는 첫 번째 ל를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로 해석해 왔다.²⁴⁾ 따라서 hattath 제물을 먹는 것은 죄를 담당하거나 혹은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였고 속죄를 위한 제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였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해석은 사람의 죄가 안수를 통하여 동물에게로 전달된다는 견해와 연결되어 제사장이 죄를 가진 hattath 제물을 먹음으로써 죄가 속해진다는 것으로 이해하게 하였다.²⁵⁾ 레위기 10:17의 우리

24) 키우치(N. Kiuchi)는 그의 책에서 레위기 10:17에 대한 해석사를 소개하고 있다. N. Kiuchi, *The Purification Offering in the Priestly Literature*, 46-52.

25) Ibid, 47.

말 번역도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였다고 이해된다

『개역개정』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표준』

“어찌하여 너희는 성소에서 먹어야 할 그 속죄제물을 먹지 않고 불살랐느냐? 속죄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주 앞에서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어서 그들이 용서받게 하려고, 이 제물을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냐?”

『공동개정』

어찌하여 속죄제물을 거룩한 자리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더없이 거룩한 것으로서 그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회중의 죄악을 치워버리고 야훼 앞에서 그들의 죄를 벗겨주려는 것이었다

위의 번역에 따르면—위의 번역에서 미묘한 차이가 발견되기는 하지만—hattath 제물을 먹는 행위는 곧 죄를 속하게 하거나 용서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죄를 속하는 행위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게 한다. 죄를 전가 받은 고기를 어떻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죄를 담고 있는 고기를 거룩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일까? 죄를 담은 고기를 먹는 행위가 죄를 제거하는 것일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학자들로 하여금 **וְנִסְחָתוֹ**를 ‘죄를 용서하다’ 혹은 ‘죄를 담당하다’로 해석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게 하였다. 따라서 밀그롬은 레위기 10:17에서 **וְנִסְחָתוֹ**은 결코 ‘죄를 제거하다’로 해석할 수 없고 오히려 ‘책임을 지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곧 hattath 제물을 먹는 것은 죄를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성소를 정화하기 위해 제사장이 가질 수밖에 없는 위험성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한다.²⁶⁾ 이런 논지에 기초하여 밀그롬은 Ehrlich의 입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나는 야훼 앞에서 …을 위하여 (성소를) 정화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공동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hattath 제물을) 너에게 주었다.”

이에 대해 키우치는 적절하게 위의 두 견해를 비평한다. 키우치는 레위기 10:17절이 성소를 정화하기 위한 hattath 제사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레위기 9:15과 관련된 전체적 본문의 상황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וְנִסְחָתוֹ**

26) J. Milgrom, “Two Kinds of Hattat”, *VT* 26 (1976), 333.

에서 קָטַף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란 의미로 이해되는 것은 의문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크니어람(R. Knierim)의 입장에 따라²⁷⁾ קָטַף은 현대어의 ‘책임’이란 말에 함축되어 있는 중립적인 말이 아니라고 말한다. 따라서 ‘죄를 담당하다/제거하다’라는 말이 더 본문의 문맥에서 정확하다 그렇다고 hattath 제물을 먹는 것이 ‘죄를 담당/제거하는 것’이라는 전통적인 입장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레위기 10:17b는 9:15에서 나타난 피의 행위로 인해 ‘죄를 담당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hattath 제물을 먹는 것은 죄를 담당/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10:18에서 말한 바와 같이 hattath 제물의 피가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제물을 먹어야 하는 것이다²⁸⁾

만약에 이러한 키우치의 견해가 옳다면 10:17의 상황이 4:1-5:13에 나타난 hattath 제사의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hattath 제물의 피의 행위를 통한 죄를 용서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더 나아가서 10:17에서 kipper 행위는 hattath 제물을 먹음으로써 얻어지는 속죄 행위라기보다는 피의 행위와 관련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 행위로서 이해된다 이런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hattath 제물)이 지극히 거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거룩한 곳에서 속죄 제물(hattath 제물)을 먹지 않았느냐? 야훼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 행위를 함으로써(כִּפֶּר עֲלֵיהֶם) 회중의 죄를 제거하도록(וְשָׂאתָ אֶת־אָשָׁמוֹתָם) 그가 그것(hattath 제물)을 주신 것이니라.

곧 kipper 행위를 통하여 죄를 제거할 수 있으며 제물을 먹음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17절에서 hattath 제물은 단순히 고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kipper 행위를 위한 hattath 전체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⁹⁾

3. 부정으로부터 정화/거룩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kipper

Kipper의 결과를 표현하는 또 다른 동사는 ‘정화하다’와 ‘거룩하게 하다’이다.

27) N. Kiuchi, *The Purification Offering in the Priestly Literature*, 50.

28) *Ibid.*, 51.

29) 키우치는 고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온 레위기 6:19, 23; 10:17에 나타난 hattath 제물이 단순히 고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hattath 제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Ibid.*, 48-49.

Kipper 문맥에서 ‘정화하다’로 쓰이는 동사는 두 가지로 ‘깨끗하다(קָטַף [qal 형])’ 및 ‘깨끗하게 하다(פִּיל [piel 형])’와 ‘정화하다, 정화하는 제사를 드리다(אָטַף, [אַטַף]의 piel 형)’가 그것이다. 다른 한편 ‘거룩하게 하다(קָדַשׁ)’는 קָדַשׁ의 piel 형이다. קָדַשׁ는 구약에서 qal 형으로 29번, piel 형으로 20번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는—어떤 경우에는 윤리적 부정이나 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창 35:2; 수 22:17; 렘 33:8 등)—제의적 부정(טָמֵא)로부터 구별하여(הַבְּרִיאַל) 제의적 정화의 기능을 갖는 것과 관련되어 사용된다(레 10:10; 겔 22:26; 44:23 참조).³⁰⁾ 여기에서 제의적 부정이라 함은 주검과 접촉하는 것(레 11:25, 28 등), 여성의 출산과 월경과 관련한 출혈(레 12:2, 5), 남성의 정액의 배설 및 성관계(레 15:16, 17, 18) 및 피부병(레 13:3, 8 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윤리적 부정이나 현대적 의미의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제의적 부정에 대한 것은 부정과 정결을 관하여 묘사하고 있는 레위기 11-15장과 그와 관련된 본문들에 집중된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제의적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kipper 행위이다. 레위기 11-15장에는 קָטַף의 qal 형과 piel 형이 모두 39회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kipper와 쓰이는 경우는 4번이며(12:7, 8, 14:20, 53, [민 8:21 참조]) 이 경우는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여 정결하게 되는 경우와 문둥병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된다.³¹⁾ קָטַף가 없이 kipper만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제의적 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은 분명하다(15:15, 30 등). 여기에서는 12:7-8의 경우를 살펴보자. 12장은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정결케 되는 과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아들을 낳은 경우에는 총 40일의 기간이, 딸을 낳은 경우에는 80일의 기간이 지나야 산모의 산혈까지가 정결하게(קָטַף) 되는데 이때에는 번제와 hattath 제사를 통한 제사장의 kipper 행위로 인하여 산모가 완전하게 정결하게 된다.³²⁾ 7절과 8절은 산모의 재산 형편에 따라 드러지는 제물의 종류를 다룬 것으로 kipper와 정결하게 되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 먼저 7절의 우리말 번역을 살펴보자.

『개역개정』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30) H. Ringgren, “קָטַף, tahar”, *TDOT* 5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6), 291.

31) Kipper와 함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지정된 시간이 경과하여 물로 씻는 행위로 정결하게 되는 경우에 포함된다(15:16-19, 19-25 등).

32) 이 점에서 hattath 제사에서의 kipper는 오직 성소와 그 부속물에만 적용된다는 밀그롬이나 라이트의 견해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산모가 아이를 낳은 후 부정해 지고 hattath 제사의 kipper 행위를 통해 정결하게 되기 때문이다. J. Milgrom, *Leviticus*, 30-31; David P. Wright, “Day of Atonement”, *ABD* 2 (1992), 72-73.

(כִּפֶּר)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קִרְרָה)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표준』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주 앞에 드러 그 여자를 속죄하여 주어서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כִּפֶּר). 그러면 그 여자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קִרְרָה). 이것이 바로,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산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공동개정』

사제는 야훼께 그 제물을 바쳐 그 여인을 깨끗이 해주어야 한다(כִּפֶּר). 그리하면 그 여인은 피를 흘려 탄 부정을 벗게 된다(קִרְרָה). 이것이 산모가 사내아이를 낳았거나 계집아이를 낳았거나, 몸을 푼 다음에 지킬 규정이다.

위의 번역을 살펴 보면 『개역개정』은 kipper를 단순히 ‘속죄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다면 『표준』에서는 kipper를 ‘속죄하여 주어서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로 확대하여 해석한 것처럼 보인다. 반면에 『공동개정』에서는 마소라 본문의 순서대로 번역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kipper는 ‘깨끗이 해 주어야 한다’로 קִרְרָה는 ‘부정을 벗게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이 번역들을 살펴보면 이 본문에서 kipper가 과연 ‘속죄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가 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말에서 단순히 ‘속죄하다’라고 번역할 때 산모가 아이를 낳은 것이 죄를 지은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런 점에서 『공동개정』은 보다 본문의 문맥에 더 가깝게 번역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개정』에서처럼 ‘깨끗이 하면 부정을 벗게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때 그 순서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오히려 부정으로부터 정화함으로써 ‘깨끗하게 되다’로 이해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즉 kipper 행위를 통하여 산모의 산혈은 깨끗하게 되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이해에 근거하여 레위기 12:7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제사장은 그것을 야훼 앞에 드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정화하여야 한다(כִּפֶּר). 그리하면 그녀의 산혈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קִרְרָה). 이것이 산모가 아들이나 딸을 낳은 다음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כִּפֶּר의 piel 형인 קִרְרָה는 제의적 상황과 관련되어 11번 나오며(출 29:36 레 8:15; 9:15; 14:52; 민 19:19; 겔 43:20, 22(x2); 45:18 등) 그 뜻은 일반적으로 ‘정화하다’ 혹은 ‘정화하는 제사를 드리다’로 이해된다.³³⁾ 그 중에서도 kipper와 함

33) K. Koch, “כִּפֶּר chata”, TDOT 4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0), 316.

게 쓰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출 29:36; 레 8:15). 흥미롭게도 이 두 본문은 모두 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쓰인 경우로서 kipper 뿐만 아니라 כִּפֶּה와도 같이 사용된다. 따라서 kipper와 כִּפֶּה 및 אָטָה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매우 유용한 구절이다. 출애굽기 29:36의 경우를 살펴보자.³⁴⁾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 위임식의 목적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임을 알 필요가 있다. 출 28:41과 29:21에 따르면 제사장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임제사를 통하여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כִּפֶּה). 그리고 29:35-37에서는 위임식의 마지막 단계에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29:43-44에 이르러서 회막, 단 그리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도록 서술하고 있다. 곧 위임제사의 최종 목적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게 되는 회막과 제단까지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살펴보고자 하는 29:36은 위임식에 상황 속에서 단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구절에 대한 우리말 번역은 다음과 같다

『개역개정』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אָטָה) 깨끗하게 하고(אָטָה)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표준』

너는 날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씩을 바쳐서,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러라. 너는 제단 위에 속죄제물을 드러서(אָטָה),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אָטָה),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여라

『공동개정』

날마다 죄를 속하는 속죄제물로 수송아지를 한 마리씩 바쳐야 한다. 네가 속죄제물을 제단에 바침으로써(אָטָה) 그 제단은 정하게 된다(אָטָה). 그리고 제단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해야 한다

위의 번역들에 의하면 공통적으로 kipper 행위를 통하여 제단이 정화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곧 kipper는 정화(אָטָה)를 위한 수단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역개정』에서는 kipper를 단순히 ‘속죄하다’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에 『표준』과 『공동개정』에서는 속죄제물을 바치는 제사행위로 번역하고 있다. 또한 אָטָה에 대하여는 『개역개정』과 『표준』에서는 ‘깨끗하게 하다’로, 『공동개정』에서는 ‘정하게 하다’로 해석한다. 그렇지만 제단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속죄해야 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은 적어도 제사장이 범죄를 하여 죄

34) 레위기 8:15에 관한 논의에 대하여는 다음을 살펴 보라. 노세영, “죽이는 속죄제물에서 kipper 의미의 연구”, 49.

를 속하는 제사의 상황을 말한다기보다는 제사장 위임 제사에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고 보면 『공동개정』의 번역은 더 적절해 보인다 따라서 『공동개정』에서 כִּפֶּרְךָ를 제단을 정화하게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여 전치사 כִּי를 ‘… 함으로써’라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kipper를 ‘속죄제물을 제단에 바치는 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kipper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곧 kipper의 중심 행위는 제물을 제단에 바치는 행위라기보다는 피의 행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에서 출애굽기 29:36을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매일 수송아지 하나를 정화하기 위하여 속죄제/정화제사(hattah)를 드릴 것이다. 네가 제단 위에 정화하게 하는 제사를 수행함으로써 (כִּפֶּרְךָ) 제단을 정화하게 할 것이다(אָמַן). 그리고 너는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에 기름을 부어라

이 구절에서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은kipper 행위가 최종적으로 제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절차에 속해 있다는 점이다. 본문에 의하면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제단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가능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제단에 정화하게 하는 예식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곧 제단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제단을 정결하게 제사예식(kipper 행위)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kipper의 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하는 구절은 레위기 16:18-19이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장으로서 kipper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많이 논의된 본문이다 흥미롭게도 이 구절에는 회막 앞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말하면서 kipper와 함께 שָׂרַף와 הָטָה도 같이 사용된다. 16:18-20a에 따르면 18a에서는 제단을 위하여 kipper 행위를 할 것으로 선언하고 18b-19에서 어떻게 kipper를 행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 20a에서는 18b-19에서 행한 행위가kipper 행위임을 결론적으로 정리하여 표현하고 있다. 또한 19b에서는 18b-19a에서 행하는 kipper 행위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으로부터 단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곧 제사장은 소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뿔들 위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나머지 피를 일곱 번 제단 위에 뿌리는 행위를 통하여 제단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는 말이다(겔 43:26 참조). 이 구절에 대한 우리말 번역을 살펴보자.

『개역개정』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kipper)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기도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וְשָׂרַף אֶת-הַזָּבִיחַ וְשָׂרַף אֶת-הַזֶּבֶחַ)

『표준』

성소 안에서 치르는 예식이 끝나면 아론은 주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올리고(kipper), 잡은 수소의 피와 숫염소의 피를 받아다가, 제단 뿔에 돌아가면서 발라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 위에 일곱 번 뿌려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같이 부정하게 된 제단을 정하게 하고(וְשָׂרַף),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וְשָׂרַף)

『공동개정』

그리고 나서 야훼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와 그 제단을 정하게 하는 예식을 올려야 한다(kipper). 먼저 그는 황소 피와 숫염소 피를 가져다가 제단 뿔들 위에 두루 바른다. 그리고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일곱 번 제단에 뿌려야 한다. 이렇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을 벗겨, 제단을 정하게 하고(וְשָׂרַף) 거룩하게 해야 한다(וְשָׂרַף)

위의 번역들에 따르면 『개역개정』이나 『공동개정』에서는 18a에 표현된 kipper를 18b-19a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표준』에서는 18a의 kipper 행위는 18b-19a에서 나타난 모든 제사 행위에 앞서 행해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개역개정』에서는 kipper를 ‘속죄하다’로, 『표준』과 『공동개정』에서 ‘성결하게/정결하게 하는 예식’으로 이해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공동개정』의 번역은 적절해 보인다.

비록 제의적 상황에서 발생된 kipper의 모든 본문을 살펴 본 것은 아니지만 위의 예들을 통하여 제의적 상황에서 사용된 kipper에 대한 몇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로 kipper는 제사장이 행하는 제사행위로서 hattath 제사를 포함한 희생제사에서 그 목적이라기보다는 수단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kipper는 문맥에 따라 ‘속죄하다’, ‘깨끗하게 하다’, ‘정화하게 하다’ 혹은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 하는 제사를 드리다’로도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키우치가 주장하였듯이 kipper는 앞에서 제시된 모든 의미들을 다 포함하는 언어이며³⁵⁾ 단순히 ‘속죄하다’라든지 혹은 ‘정화하게 하다’ 등의 한 가지 의미로 해석하기에 어렵다. 동시에 וְשָׂרַף, וְשָׂרַף, וְשָׂרַף 등의 용어들은 kipper와 서로 대체하여 쓸 수 있는 말이라고 하기에 적절해 보이지 않는

35) N. Kiuchi, *The Purification Offering in the Priestly Literature*, 98.

다.³⁶⁾ 적어도 우리말에서는 ‘속죄하다’와 ‘정화하게 하다’는 언어적 뉘앙스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단어로 번역하였을 경우 독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맥에 따라 현대적 의미로 이해될 수 있도록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4. 나가면서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할 때 히브리어에서 속죄와 정화의 반대적 의미를 지닌 ‘죄’와 ‘부정’의 관계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구약에서 ‘죄’와 ‘부정’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일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속죄하다’와 ‘정화하게 하다’를 구분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약에서 윤리적 죄와 부정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특별히 제의적 문맥에서는 죄와 부정은 자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며(레 5:3-4; 민 6:6-12) 부정은 우상 숭배 등과 같은 죄를 말하는 본문에서 같이 사용되기도 한다(레 18:24-30).³⁷⁾ 그러나 죄와 부정이 항상 동일하게 표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윤리적인 죄가 부정으로 표현되기는 하지만—어떤 경우 예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민 6:11)—모든 종류의 부정을 윤리적인 죄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라이트에 따르면 구약에서의 부정은 자연적이고 삶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허용된 부정과 주로 윤리적 죄로부터 발생하는 금지된 부정으로 구분된다.³⁸⁾ 따라서 좀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 죄는 부정의 한 부분에 속해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속죄하다’와 ‘정화하다’에 미묘한 차이가 있듯이 ‘죄’와 ‘부정’의 의미 사이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죄와 부정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적어도 제의적 본문에서는 죄는 부정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종종 죄와 부정이 동일시된다고 할 수 있다. 곧 죄로 인해 이스라엘 사회에 부정이 발생한다는 말이다 가장 대표적인

36) 예를 들면, 데이빗 라이트(David P. Wright)는 כִּפֵּר와 kipper는 비슷한 말로 간주한다. David P. Wright, “Day of Atonement”, 73.

37) 대부분의 학자들은 구약에서 죄와 부정은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 Levine, *Leviticus, Leviticus: The Traditional Hebrew Text with the New JPS Translation,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105; L. E. Toombs, “Clean and Unclean”, *IDB 1* (Nashville: Abingdon Press, 1962), 647; Andre, “tame”, *TDOT 5*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6), 332.

38) David P. Wright, “Unclean and Clean (OT)”, *ABD 6* (1992), 729-730.

예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 성소가 부정해지는 것이다(레 16:16). 주검으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이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성막을 부정하게 하는 경우(민 19:13)나 우상숭배가 성소를 부정하게 한 경우(겔 5:11; 23:28-39) 등은 대표적인 예들이다. 따라서 코흐가 말한 바와 같이 제사장들이 이러한 모든 부정으로부터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출 29:36; 레 8:15) 정기적으로 제단과 성소를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레 16:16-20).³⁹⁾ 결국은 부정에서 거룩한 상태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희생제사를 통한 kipper 행위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희생제사의 목적을 단순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웃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한 데이비스의 견해는 지나치게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⁰⁾

kipper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이스라엘의 제의적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이어야 한다⁴¹⁾는 점에서 더욱 확실해진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상 자연적인 이유이든 혹은 고의적인 범죄로 인한 것이든 이스라엘 사회는 제의적으로 부정해질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된 상태를 정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죄를 낳게 된다(참고, 레 17:16; 민 6:11).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정이 지속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과 결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겔 39:24; cf. 레 15:31). 따라서 이스라엘은 kipper 행위에 의한 희생제사를 통해 늘 거룩성을 유지해 있어야 하며 혹 부정해 졌을 경우에는 거룩성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이 항상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⁴²⁾ 제의적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정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상태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⁴³⁾ 그리고 이러한 모든 변화의 과정은 kipper 행위에 의한다.

39) K. Koch, “כַּפָּרָה chata”, 318.

40) D. J. Davies, “An Interpretation of Sacrifice in Leviticus”, *ZAW* 89 (1977), 387-399.

41) 감미(J. G. Gammie)는 제사장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J. G. Gammie, “Priestly Understanding of Holiness”, *Holiness in Isra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32.

42) 여기에서 ‘거룩’이란 제의적 거룩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지면상 다루지는 못하지만 ‘제의적 거룩’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David P. Wright, “Holiness (OT)”, *ABD* 3 (1992), 237-249; H. Ringgren, “קִדְּשׁ qds”, *TDOT* 12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3), 533-539.

43) David Wright, “Unclean and Clean”, 733;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19. 레빈은 성전 이후에 시대의 유대교에서도 부정정결-거룩의 단계적 변화에 대한 전승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B. A. Levine, “Leviticus in the Ongoing Jewish Tradition”, *Leviticus: The Traditional Hebrew Text with the New JPS Translation Commentary*, The JPS Torah Commentary Series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219-220.

이런 점에서 볼 때 위에서 논의 한 바와 같이kipper가 ‘속죄하다’, ‘정화하다’ 및 ‘거룩하게 하다’의 의미를 다 포함한다는 견해는 더 확실해진다. 단순히 속죄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화하는 행위를 통하여 마침내 거룩하게 되는 것이 kipper의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kipper는 여러 가지 희생제사의 문맥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지만 최종적으로는 거룩성 회복과 유지를 위한 행위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주요어>(Keywords)

키페르, 속죄하다, 거룩하게 하다, 정화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죄/부정 kipper, atone for/expiate, sanctify, purify/be clean, sin/unclean

(투고 일자: 2009. 7. 14, 심사 일자: 2009. 9. 14, 게재 확정 일자: 2009. 9. 14)

<참고문헌>(References)

- 노세영, “죽이는 속죄제물에서 kipper 의미의 연구”, 「구약논단」 19(2005/12), 31-52.
- Andre, “טָמֵא, tame”, *TDOT* 5, 330-341,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6.
- Davies, D. J., “An Interpretation of Sacrifice in Leviticus”, *ZAW* 89 (1977), 387-399.
- Hartley, John E., *Leviticus*, WBC 4, Dallas: Word Books, Publisher, 1992.
- Gammie, John G., *Holiness in Israel*, Overtures to Biblical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 Kiuchi, N., *The Purification Offering in the Priestly Literature: Its Meaning and Function*, David J. A., Clines and Philip R. Davies, eds., *JSOTSupp* 56, Sheffield: JSOT Press, 1987.
- Koch, K., “חַטָּא chata”, *TDOT* 4,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0, 313-319.
- Lang, B., “כִּפֶּרֶת, kipper”, *TDOT*. 7,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5, 288-303.
- Levine, Baruch A., *In the Presence of the Lord: A Study of Cult and Some Cultic Terms in Ancient Israel*, Leiden: E. J. Brill, 1974.
- Levine, Baruch A., *Leviticus: The Traditional Hebrew Text with the New JPS Translation*,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 Levine, Baruch A., “Leviticus in the Ongoing Jewish Tradition”, *Leviticus: The Traditional Hebrew Text with the New JPS Translation*,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215-237.
- Migrom, J., “Two Kinds of Hattat”, *VT* 26 (1976), 333-337.
- Migrom, J., *Leviticu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2004.
- Migrom, J., “Day of Atonement as Annual Day of Purgation in Temple times”, *Encyclopedia Judaica* 5 (1971), 1384-1387.
- Migrom, J., “Israel’s Sanctuary: The Priestly ‘Picture of Doran Gray’”, *Revue biblique* 83 (1976), 390-399.
- Migrom, J., “Kipper”, *Encyclopedia Judaica* 10, 1039-1043.
- Migrom, J., “Sin-Offering or Purification-Offering?” *VT* 21 (1979), 237-239.

- Porúbcan, Štefan S. J., *Sin in the Old Testament: A Soteriological Study*, Roma: Herder, 1963.
- Ringgren, H., “טהר, tahar”, *TDOT* 5,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6, 288-296.
- H. Ringgren, “קדש, qds”, *TDOT* 12,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3, 533-539.
- L. E. Toombs, “Clean and Unclean”, *IDB* 1, Nashville: Abingdon Press, 1962, 641-649.
- Wenham, G. J., *The Book of Leviticu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9.
- Wright, David P., “Day of Atonement”, *ABD* 2 (1992), 72-76.
- Wright, David P., “Holiness (OT)”, *ABD* 3 (1992), 237-249.
- Wright, David P., “Unclean and Clean (OT)”, *ABD* 6 (1992), 729-741.

<Abstract>

A Proposal on the Meaning and Korean Translation of Kipper

Prof. Se Young Roh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On the one hand, the term kipper which has given the biblical foundation to the doctrine of atonement of the Christian theology has been translated as ‘atone for’ by many scholars. On the other hand, some scholars, including J. Milgrom, have raised questions on the interpretation of kipper as ‘atone/expiate for’. Especially, based on the fact that human is not used as the direct object of kipper, kipper is the activity to purify the sanctuary and its sancta for the people. To translate either ‘atone/expiate for’ or ‘purify’, however, does not seem to be adequate for the modern Korean translations of the Bible because the meaning of ‘atone for’ is generally different from that of ‘purify’.

In order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kipper in the cultic context, we need to know what the result of kipper is and who the recipients of kipper are. The verbs which express the result of kipper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wo groups. One is ‘to be forgiven’ while the other is related to the verbs, ‘to be clean’, ‘to purify’, and ‘to sanctify’. In all texts of ‘kipper + to be forgiven(נִסְלַח)’, the recipients of kipper are people who have sinned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and their sins are forgiven by performing kipper. In case of the second group, kipper is used with ‘to be clean(טָהַר)’, ‘to purify(אָהַרַת)’, or ‘to sanctify(קָדַשׁ)’. Sometimes kipper also has שָׁשׂ with טָהַר or אָהַרַת. This means that the object of kipper is changed from the state of ‘cleanness’ to the state of ‘purification’, and finally to the state of ‘holiness’. In this case, objects of kipper can be people who are unclean and certain things which are in the sanctuary and its sancta. Accordingly, the verb kipper is not simply limited to either ‘atone/expiate for’ or ‘purify’, but rather expanded to mean ‘to be holy’. So kipper should be interpreted adequately on the basis of the Korean language.

Such understanding of kipper can be affirmed by the fact that the cultic society of Israel has to be a holy community. The society of Israel, which has always been threatened by the natural uncleanness or the prohibited uncleanness

caused by sins, has had to restore and maintain their holiness from the uncleanness through their salvation by God's presence. According to cultic texts, Israel must undergo the change process from uncleanness to cleanness, from cleanness to purification, and from purification to sanctification through the sacrifices of kipper so that they can restore and maintain holiness.